

“장애의 벽 허무는 책 만든다”

代 이어 시각장애인 ‘눈’ 역할... 해외서도 좋은 반응

육근해 도서출판 점자 대표

국민 5명 중 1명은 시각장애와 난독증 등으로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 장애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책은 연간 출판물의 2%도 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묵묵히 점자책을 비롯한 대체도서 발간에 매진하는 출판사가 있다. 국내 대체도서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도서출판 점자(대표 육근해)는 원래 국내 첫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인 ‘한국점자도서관’이 소규모로 하던 대체도서 출판 일을 따로 떼어내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한국점자도서관은 점자도서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정책열람권과 투표권을 찾아 주는 등 40여 년간 시각장애인 문화 복지 증진에 개척자 역할을 했다. 또 두 번에 걸쳐 국제회의를 주최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국제화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점자가 발행하는 대체도서 중에는 점자책 말고도 낮은 시력 탓에 일반 책을 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큰글자도서’와 글씨 위에 점자가 인쇄된 투명 필름을 붙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독서할 수 있는 ‘점자라벨도서’가 있다. 그 밖에 일반 책에 점자를 함께 인쇄한 ‘점목자혼용도서’, 청각장애인 부모와 비장애 자녀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수화가 그려진 ‘수화배움책’ 등도 점자가 펴내는 대체도서들이다. 손으로 만져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 ‘촉각도서’와 고전화가들의 명화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명화도서’는 해외에서 호평을 받아 수출길도 열었다. 육근해 대표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비장애 자녀의 독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고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을 더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 대표는 선친의 뒤를 이은 제2대 점자도서관장이다. 어려서 시각을 잃은 고(故) 육병일 1대 관장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상적으로 교육받았지만 시각장애인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1969년 사재를 털어

국내 최초 점자도서관을 설립했다. 5남매 중 막내딸이던 육 대표는 어려서부터 도서관 일과 점자책 제작을 도왔고 부친이 타계한 뒤 도서관 운영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육 대표는 현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식정보격차 소위원회 위원장과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 교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육 대표와의 일문일답.

Q 도서출판 점자의 설립 계기는?

A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셨다. 당신께서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받았지만 시각장애인 대부분이 배움의 기회조차 못 잡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1969년 사재를 털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한국점자도서관을 열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라 비치할 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동원돼 직접 점자책을 찍었다. 학교 다녀오면 숙제보다도 점자책 제작에 먼저 매달려야 했다. 오빠는 점자판을 찍고, 어머니는 인쇄하고, 나는 실과 비늘로 책을 엮는 일을 맡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내가 관장을 맡아 오늘에 이르렀다. 점자도서관이 중요하지만 책을 출판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므로 2009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도서출판 점자를 세웠다.

Q 한국점자도서관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A 점자도서관은 40여 년간 시각장애인의 문화 복지 증진에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1970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해 점자도서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1980년대에는 ‘북 버스(Book bus)’로 찾아가는 도서관 시대를 열었다. 시각장애인이 정부 정책을 열람하고 직접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운동을 벌여 관철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음성 도서를 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

“시각장애아동들이 독서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언젠가는 사회지도층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는 게 꿈이다.
그러려면 장애인도 부담 없이
책을 사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빵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빵을 만들어 먹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국민 5명 중 1명은 시각장애와 난독증 등으로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 장애인이다. 하지만 연간 출간되는 도서 5만여 종 가운데 점자책을 포함한 대체도서류는 2%도 안 된다. 사진_ 이상현 기자

는 음성 도서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국제표준 ‘데이지(DAISY)’를 도입해 디지털 독서 환경을 조성했다.

점자책 출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낮은 시력 때문에 일반 책을 보기 힘든 이들을 위한 큰글자도서를 만든 것도 보람 있는 일이다. 이밖에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독서할 수 있도록 글씨 위에 점자가 인쇄된 투명 필름을 붙인 점자라벨도서와 일반 책에 점자를 덧붙여 인쇄한 점목자혼용도서 등 대체도서들을 부지런히 출간했다. 두 번에 걸쳐 국제회의를 개최해 한국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국제화에도 이바지했다.

다만 이런 일들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앞장섰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작년 말 도서관법 개정안에 국립 장애인도서관 설립 조항이 추가돼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과 공공, 민간 점자도서관이 유기적으로 묶여 전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Q 국내 대체도서시장 규모는?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시각장애인은 23만 명이지만 비등록 시각장애인, 작은 글씨를 못 보는 어르신, 저시력자, 난독증 환자,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한 독서 장애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전 국민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연간 출간되는 도서 5만여 종 가운데 점자책을 포함한 대체도

서류는 2%도 안 된다. 대체도서의 70%를 우리 회사가 떠맡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연간 20억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영세하다. 책이 부족해 도서관 이용률도 떨어진다.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Q 대체도서 출판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A 시각장애아동의 부모가 책을 읽고 싶어도 한 권에 4만~5만 원씩이나 하는 책값 부담이 너무 커서 쉽지 않다. 제작비가 비싼 탓이다. 요즘은 많이 기계화됐지만 그래도 한 장씩 출력해 일일이 확인하며 제본하기 때문에 제작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 손으로 그림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그림 점자책은 아직도 과거 방식대로 한 자씩 찍는다. 종이가 두꺼워 부피가 일반 책의 7~8배나 되므로 이윤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책값이 일반 도서의 5배를 훌쩍 넘는다. 또 다른 요인은 저작권료다. 점자책은 저작권법상 복제가 허용되지만 다른 대체도서가 문제다. 큰글자도서는 모두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현재 35개 중소 출판사가 협력을 약속했으나 정작 대형 출판사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도서 출판은 공익 사업이다. 요즘은 ‘재능 기부’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지만 대체도서도 저작권을 기증하는 저자와 출판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Q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A 도서출판 점자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이래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면서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많이 늘어났다. 2010년부터 한화그룹의 지원으로 매년 4천 부의 점자책과 촉각도서, 5만 권의 점자달력 등을 제작해 전국의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무상 배포하고 있다. 대체도서로 만들어 달라며 원고를 보내오는 작가도 증가하는 추세다. 책값이 비싸서 그동안 ‘내 책’이 없던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고 신간이 언제 나오느냐고 묻거나 부모들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릴 때면 몽클한 보람을 느낀다.

Q 최근에 펴낸 대체도서는 무엇인가?

A 비장애 자녀의 독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부모를 위해 수화가 그려진 수화배움책을 발간했다. 실제로 자녀와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됐다는 감사 인사를 수없이 받았고 전문가들도 높이 평가했다. 촉각도서는 점자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손이 아파



도서출판 점자에서는 낮은 시력 탓에 일반 책을 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글자 크기가 일반 책의 1.5배인 큰글자도서를 발간하고 있다. 사진제공_ 도서출판 점자



청각장애인 부모와 일반 자녀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수화가 그려진 수화배움책과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녀에게 모국어로 동화책을 읽어 주면서 한국어를 함께 가르치도록 돕는 이중 언어교재 다국어책. 사진제공_ 도서출판 점자

점자를 읽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만들었다. 손으로 만져 상상할 수 있도록 천이나 깃털,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만들었다. 책 읽기를 꺼리던 아이들도 점자 습득력이 높아지고 어휘력과 사회성도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명 고전 화가의 그림을 입체화한 명화도서도 있다. 그림 윤곽을 따라 겹겹이 종이를 덧붙여 명화를 손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자녀에게 모국어로 동화책을 읽어 주면서 한국어를 함께 가르치도록 돕는 이중 언어교재 '다국어책'도 개발했다.

Q 해외 진출 계획도 있나?

A 촉각도서를 2월 말에 일본으로 수출한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러시아 등지에서도 활발하게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 각종 국제도서전시회에 참가하면서부터 수출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적 촉각도서 경연대회인 티플로 앤드 택투스(typhlo & tactus)에서 <터치미>가 우수 도서에 선정됐고 <해님 달님>은 2위에 올랐다. 국내 출판사로서는 첫 수상이다. 명화도서는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찬사까지 들었다.

Q 음성 전자책이 늘어나면서 점자책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

A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읽지 못하면 '이중 실명'이라고 한다. 일반인도 TV만 보고 책을 멀리하면 편지를 쓸 때에도 오타자가 난무하고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기억력이 퇴보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도 책이 주가 되고 음성 전자책이나 음성 인식 보조장비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종이책의 위상이 줄지 않으리라 본다.

Q 앞으로의 꿈은?

A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주 빌 게이츠는 "내 지식의 95%는 동네 도서관에서 얻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아동들도 독서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언젠가는 사회지도층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는 게 꿈이다. 그러려면 정부에서 문화 바우처 등을 활성화해 장애인도 부담 없이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빵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빵을 만들어 먹는 법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또 하나의 꿈은 도서출판 점자가 세계적인 대체도서기업으로 성장해 만족스럽지 않은 처우에도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대기업 부럽지 않을 정도로 대우해 주는 것이다. **m**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